

새 학기를 시작하며

권연경*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오크’(orc)들은 힘이 세고 영리하다. 하지만 가치관이 없고 자기 사유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섭지만, 노예적 존재다. 이런 오크들을 생산하는 것은 악의 화신 사우론만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무시무시한 종류의 오크는 한때 중간계 최고의 현자였던 사루만의 손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섬뜩함의 한켠에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 이야기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 배운 사람을 자처하는 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일까, 괴물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것일까?

새 시집을 하나 사 읽고, 그중 하나를 암송해 오라는 과제를 낸 적 있다. 그중 다수는 놀랍게도 ‘고딩 시절 후 처음으로 시집을 손에 잡았다’고 고백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무서운 이야기다. 그간의 길고 치열한 ‘교육’의 결과기 이렇다. 그간 학교서 ‘배웠을’ 적지 않은 시들은 시의 멋을 알려주고 시에 대한 애착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시에 손사래를 치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다. 시적 소통이 우리 삶의 한 차원이라면, 적어도 그 점에서는 ‘사람 만드는’ 일에 실패한 셈이다. 그뿐 아니다. 아름다움을 알고, 그에 반응하는 감수성, 정의에 대한 예민함,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감각. 우리는 이런 데서 ‘사람다움’을 느낀다. 하지만 입시라는 최고 가치와 이를 얻기 위한 ‘경쟁’에 최적화된 우리 ‘교육’은 이런 인간다움을 찾고 기르기보다 도리어 억누르고 파괴하는 과정에 가깝다. ‘사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혹이라도 ‘사람이 될까’ 온갖 억제체를 투여하는 것 같다. 그냥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두면 혹 멋진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교육’한답시고 데려다 괴물을 만드는 형국이다. 해가 갈수록 이 느낌은 더 강해진다.

‘입시’를 ‘취업’으로 바꾸면, 금방 우리 이야기다. 사실상 ‘취업’이 대학의 최고가치가 된 마당에, 우리 ‘교수’ 역시 한 가지 근본적인 물음에서 자유롭지 않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더 멋진 ‘사람’이 되게 돕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다움을 팽개친 채 사적, 사회적 욕망에 길든 오코 같은 존재를 만드는 것일까? 인문학(human-ities)의 위기를 말하면서도, 나 역시 사람됨의 가치 자체를 어루만지는 대신 인문학의 지분 축소에 더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닐까? 물론 모두가 잘 알 듯, 눈앞의 현실은 간단치 않고, 이 물음에 대한 답 역시 단순하지 않다. 답을 표현하는 방식 또한 이리저리 뒤틀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질문 자체를 팽개칠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되새김질하며, 또 한 학기를 시작한다. 가치를 현실적 대안으로 만드는 일은 늘 어렵지만, 어찌면 이 긴장이 ‘교육’과 ‘교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손을 놓는 게 제일 쉬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생각하며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군분투하실 인문대 모든 교수님들께 주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